

경기북도 설치·균형발전 등 계획 요청

임창휘 도의원, 본회의서 도정 질의



임창휘 도의원이 본회의서 도정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민주당, 광주2)은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경기

시성장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꼬집고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하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 명확한 비용편익분석 △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 구성현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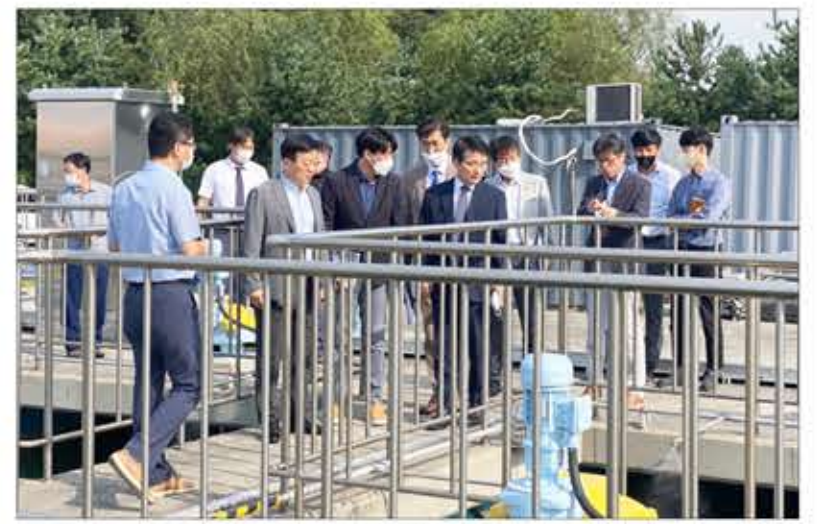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 '중점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점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부권의 중점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경기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안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도정질문을 마쳤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uw71@hannalnet



고양시가 정수처리장 공정시설 방문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 정수처리장 공정시설 위생 점검

수돗물 생산·공급 관리 원격감지시스템 등

고양특례시가 최근 전국에서 갈따구 유출 수돗물에 대한 논란이 발생,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정수장의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정수처리장 공정시설을 방문 위생 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을 방문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갈따구 유출과 녹조에 대한 사전예방 및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지사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에 이어 중앙제어시스템 등 생

산시설을 방문해 정수 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관리하는 원격감지시스템을 둘러보았다.

한편 시는 최근 갈따구 유출과 녹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수돗물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K-water와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와 대책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우 기자 gj@hyundaiilbo.com



인천시의회-호치민시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방문단이 인천을 찾았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韓-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시의회-호치민시의회 우호협정 5주년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대표단, 인천시의회 방문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시의회(의장 허식)와 호치민시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2017년 7월) 5주년 등을 기념해 호치민시의

회 방문단이 인천을 찾았다.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Nbuyen Thi Le) 의장을 단장으로 한 총 18명의 대표단이 23일 인천시

회의를 방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교류 재개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방안 및 상호교류 확대에 대해 대면으로 여러 의견을 나

눴다. 양 도시 의회 간 상호친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찾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도시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한 소통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은 "호치민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행정혁신 정책 등을 배우고 싶다"고 회답했다.

한편, 호치민시의회 경제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호치민시의 3위 투자국이며, 호치민시 및 인근지역에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또 호치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성장회복 시기로 보고 서비스 개선,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한국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동 기자 kjd@hyundaiilbo.com

북부병무청, 청년드림잡콘서트 참가

산업기능요원 희망자-병역지정업 일자리매칭 지원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오는 30일까지 2022년 고양시 채용박람회 청년드림JOB콘서트를 통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북부희망자와 관내 병역지정업체 간 일자리매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드림JOB콘서트는 고양시가 주최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 등 4개 기관이 후원하는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로, 경기북부지역 병역지정업체와 사회복무요원 모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 병역의무자는 참가업체의 채용정보를 확인한 후 입사 지원 및 업체와의 개

별면접이 가능하고, 사전매칭을 신청할 경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후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를 거쳐 대체복무형식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북부희망자는 취업과 병역을 해결하고, 관내 병역지정업체는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우 기자 hgkim36@naver.com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시 공동구 점검

안전사고 대비·근무여건 등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안양시 공동구(이하 공동구)를 찾아 점검했다.

이 날 이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동안구청장은 직접 공동구에 들어가 관리현황,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여부, 직원 근무 여건 등을 살펴봤다.

이재현 위원장은 "어려운 근무환경이지만 국가중요시설인 만큼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93년도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에 만들어진 공동구는 총연장 10km에 이르며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이다.

안양/이영희기자 yh@hyundaiilbo.com

안성환 광명시의장 협의회장에 선출

도중부권 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김포시의회가 주관한 경기도중부권 9개 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중부권협의회) 제112차 정례회가 23일 김포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경기 중부권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첫 모임이다. 특히, 중부권협의회는 이날 제9대 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 부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부회장에는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협의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정례회가 김포시에서 열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만큼 의회

간 지속적인 정책공유로 중부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중부권의회협의회는 중부권역 인근 9개시(안산, 안양, 부천,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의왕, 과천)의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2개월 마다 정기순회 형태로 회의를 개최, 중부권역 의회를 대변해 광역단체와의 정책 협의는 물론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등 공동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연대해 나가고 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hyundaiilbo.com

평택도시공사, 포승지구 지원시설용지 공급

단독주택용지 등 28필지 내달 17~20일 신청 가능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지난 23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28필지에 대하여 공급을 추진한다. 금번 공급 대상은 단독주택용지 1

필지, 상업시설용지 8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3필지, 주차장용지 6필지이다.

경쟁입찰에 따른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10월 17일 10:00부터 10월 20일 17:00까지 공급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031-611-51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2020년 12월 개발사업이 마무리됐으며,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부품·화학·기계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입주하는 등 향후 평택 서부권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인근 화양지구, 평택호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순차로 예정되어 있고 평택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포승지구 내 '수도도시 기술지원센터'가 건립 예정 중에 있어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여 평택시 포승읍 화곡리에 일대 조성하는 경기도 유일 경제자유구역 지구다.

평택/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도교육청, 학생 교육기회 보장 교육급여·교육비 연중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 하는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에

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북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www.hyundaiilbo.com
e메일 :hdib@hyundaiilbo.com

22327 인천광역시 중구 섯골로 61 (도원동)

발행·편집인 권오문 인쇄인 김영민 편집국장 조성원

대표전화 (032) 8813-114 (031) 5320-114

회장실 (070)7458-0012 편집국장 (070)7458-0016
총무부 (070)7458-0011 편집부 (070)7458-0017
광고부 (070)7458-0114 편집부 (070)7458-0018
판매부 (070)7458-0014 사회부 (070)7458-0019
팩스 (032) 8813-119 정경부 (070)7458-0015

등록번호-인천가 00039(당일)
등록일자-1995년 5월 24일
창간일자-1996년 5월 30일

*구독료 월 15,000원 1부 700원 구독신청·광고문의 (032)8813-114

편집:정다정 기자 jid@